



무지개빛이 회색빛이 되더라도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다.



헬렌 켈러가 남긴 명언 중 이런 말이 있다.

“행복의 한 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지난하게 연구와 분투하며 박사과정을 보내면서, A사립대학교의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4년 동안 수업일수는 적었지만, 내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그 안에서 보람을 느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강의했다는 것은 강의 평가가 전 교원 중 1위를 몇 차례 했다는 것으로 심적인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진로와 삶에 대한 고민을 나와 공유함으로써 그들과 소통하는 스승이면서 인생 선배가 되어가고 있었다. 급여가 많지는 않았지만, 수업일수에 비해 교수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박사과정을 마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직장이었다. 그 안에는 나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모두 포함한 행복이 있었던 곳이다.

겨울방학 중, 1박 2일 연구방법론 특강이 있어 타 지역에서 내려오는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학과장에게 받는 첫 전화였다. 초빙교수라지만, 일 년에 한 번씩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는 이미 인사자료를 발송한지 한참 지난 후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최고 강의평가를 받은 나에게 교수대상 교수법 특강이라도 맡기는 줄 알고, 그 짧은 시간에 긍정적인 긴장이 감돌았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도 잠시간, 사람의 기분이 저 땅바닥 아래, 아니 저 깊숙한 밑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거라는 걸 그 때 알아버렸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나지막한 목소리.

“초빙교수 신분은 계약만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지도 못한 학과장의 그 말, 말, 말 때문이었다. 내 강의가 초빙교수 신분이 아니어도 시간강사 신분으로 강의하면 될 것 같으며 학교 재정 걱정을 느닷없이 하는 게 아닌가? 차라리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업시수를 늘려달라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뭔가 짱 얻어맞는 기분이었다. 분명 당당히 공채를 통해 입사했고, 비 정년 트랙이라 할지라도 항상 내 강의는 수강신청이 1~2분 안에 끝날 정도였고, 청강생도 꾸준했으며, 강의 평가는 만점에 가까웠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학생들보다 먼저 입실하고, 늦게 퇴실하면서 늘 상담하고, 준비하고, 강의 시간 외 시간을 활용하며 열심을 다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내 진심과 노력이 통했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난 가르치는 게 좋았다.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까지를 포함하여 내가 살아있음을, 보람됨을 느끼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모든 것들이 무색해진 순간이었다.

무지개빛이 색이 바랜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다. 해고 문서와 함께 그렇게 전화 통보를 받은 게 작년 겨울의 이야기다. 박사학위까지 모든 조건이 맞춰지는 그 때에 해고통보를 받은 나는 너무 씩씩했다. 그리고 많이 슬펐다. 또 아팠다. 이제 누군가가 내 직업을 물으면 나는 무엇이라고 답해야 하나 난감했다. 내 아이의 부모 직업란에 내 칸은

이제 주부로 채워야 하는 것인가? 만감이 교차하고, 우울증이 올 것만 같았다. 남편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며 화가 난 마음을 며칠 간 다스렸다. 노무사와 상담도 했다. 승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승소를 한 들 그 학교에 발을 담그고 있을 수는 없을 일이다. 조용히 있기로 하며, 다른 학교를 물색했다.

다행히 그 시기에 교수공채가 눈에 띄었다. 다시금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른 배로 옮기면, 그리고 향해하면 그만일 거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다. 다행히 경력과 연구실적, 분야가 딱 나에게 맞는 곳이었다. 그렇게 이 학교는 잊고, 신규채용 공지를 한 학교에 어플라이를 시작했다. 1차 서류심사는 예상대로 통과되었고, 2차 공개강의와 면접을 남겨두었다. 2차는 2배수만을 남겨 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한 명을 심사 대기실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지인이었고, 1차에 부분 조건이 맞지 않은 사람이어서 당연히 내가 되리라는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다. 발표일이 당초보다 일주일이 늦춰지고 있었다. 초조하고 불안했다. 또 그렇게 하루, 이틀이 늦어지더니 전화가 오지 않는다. 그 지역으로 이사까지 결정했던 나는 답답함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는 “죄송하다”는 답만 연거푸 하고 있었다. 뭐가 죄송하단 말인가?

“그럼 그 선생님은요?”

나는 소심하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아, 그분도 안 되었어요.”

“왜죠?”

“네. 이번에는 학생모집도 그렇고, 학교에서 공석으로 두기로 결정했어요.”

이해 못 할 일이었다. 공석으로 둘 자리에 왜 공채를 하고자 한 것이며,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최종심사에 올라온 것도 아이러니하고, 이런 저런 들려오는 소식들과 소문들에 머리가 아팠다. 내심 학문의 요람에서도 서로 얽혀있는 작은 정치판을 보는 것 같아 속이 상했다. 누군가의 말처럼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것일까? 세상물정 모르고 덤볐던

것일까? 아님 내가 너무 부족했던 까닭일까?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당당하게 승부를 하고 싶었는데, 이마저도 안 되는 상황에 보름가량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냈다. 이제 어떻게 하나, 전에 한번 모 대학에서 최종심사까지 올라갔다가 미끄러질 때와는 기분이 달랐다. 나를 탓했던 그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어디다 얘기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며칠을 앓았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이 왔다. 평소 나를 챙겨주는 고마운 선배였다. 자신이 여기저기 나를 대신해서 지인을 동원하여 내가 들어갈 학교를 찾아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고마웠다. 거기에 차마 최근에 B대학교 공채에서 낙하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선배가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내년에 나올 자리가 있는데…….”

라며, 그 자리는 욕심 날 정도로 꽤 관찮은 학교에 관찮은 자리였다. 한참 얘길 듣다가 이어지는 그 다음 얘기가 문제였다. 그 자리에 가려면 얼마정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 선배는 남편과도 친한 사이라 이런 얘기는 당사자인 나보다도 남편과 하는 게 낫다고 하는 것이다. 나를 생각해 준 마음은 고맙지만, 이 선배조차도 나를 이렇게 인사 청탁을 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또 씁쓸했다. 깊은 한숨이 나왔다. 그런데 이러한 관행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주변의 몇 몇 선배들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나에게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조언까지 하는 누군가가 있어 기분은 또 바닥을 쳤다.

청탁하고 입사해서 교수하면서 3년 정도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정년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아주 조심스러운 제안이었다. 나는 그걸 거절하는 데 일 분도 걸리지 않았다. 아직은 연구와 강의를 즐거운 나였고, 내 능력과 아직도 청렴함이 남은 학교들이 많을 거라는 기대감이 남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떳떳하지 못한 인사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럴 돈도 없지만, 그럴 마음도 없었다. 앞으로도 나는 대가성 있는

행위 자체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남편은 “집이라도 처분해서.”라는 말을 꺼낸다. 마음이 울컥했다. “자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이게 이 바닥의 행태라면 그걸 따라야지 않을까”라며 말이다. “당신 위해서라면 나는 더 고생해도 되네. 당신의 꿈을 펼칠 곳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지.”

뭐가 정답인 것일까? 답답하기만 했다. 왜 내 이런 꿈을 청탁과 이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이틀을 생각에 잠겼고, 이내 나의 답은 자리거절이었다. 내가 꿈꿔왔던 당당한 꿈이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돈으로부터 접히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짧은 며칠이 흘렀다.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공무원은 응시할 생각이 없느냐고 말이다. 공무원은 내가 원했던 자리는 아니었다. 다만 학교에 가기 전까지 잠시 들러 가는 정거장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응시했고,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다. 입사 후, 첫 달은 가시밭길이 따로 없었다. 내가 왜 여기 와있는 것인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던 시기였다.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사람들과 출장업무가 많은 그대에 몸살이 났고, 긴장했고, 버텨야했다. 나의 직업적 정체성을 찾고자 내면의 나와 싸우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 둘씩 알게 된 동료들이 있었다.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챙겨주는 상사와 선배들이 있었고, 일도 배워가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차츰 적응이 되어갔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일 경험에서 오는 다양함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일하는지도 눈으로 몸으로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잠시 들러 가는 간이 정류장이 아닌 계속 머무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이 분야에 다 쏟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떳떳한 입사라는 부분이 나를 당당하게 만들고 있었다.

생각의 전환이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어제의 나도 나이고, 오늘의 나도 같은 나이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제대로 갖추고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바로 보인다.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선배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투명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당당하게 내 아이들에게 엄마는 이렇게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일할 거라는 내 소신을 밝힐 수 있어서 좋다.

헬렌켈러가 말한 행복의 한 쪽 문이 닫혀서, 모두 닫힐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다른 쪽 문이 열렸다. 관행이나 지금 당장의 달달함만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에 나를 위해 열려 있는 이 공직이라는 문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소중함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겠다.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어도 된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작은 힘이 되어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사회복지를 공부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안에는 기회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 지나고 나니 보인다. 청년^韓세상